

## 올여름 패션 트렌드는 은근한 듯 대담한 '노출'

이제는 가볍고 시원한 여름 패션에 눈길을 돌려야 할 때다.

올여름엔 노출 범위를 넓히는 것보다 은근하게 슬쩍 드러내는 스타일이 트렌드다. 과감하게 모두 드러내는 것보다는 허리 라인만 드러내거나 크고 작은 컷팅 디테일, 시스루 소재 등을 활용한 은근한 노출을 연출하는 기술을 styleM(stylem.mt.co.kr)이 소개했다.

### ■ 속옷 아니에요... '크롭트 톱'



사진=shutterstock

여름마다 '잇템'으로 떠오르는 크롭트 톱, 올여름에도 여전히 인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속옷에 가까운 짧은 길이의 브라톱은 물론 배가 살짝 보이는 길이, 빈티지하게 짜인 크로셰까지 길이와 디자인은 한결 다양해졌다.

크롭트 톱을 가장 쉽게 입을 수 있는 방법은 다리를 드러내지 않는 넉

넉한 핏의 와이드 팬츠와 매치하는 것. 노출 범위를 줄여주는 골반 위로 올라오는 하이웨이스트 팬츠, 스커트를 매치하면 시크하고 포멀한 느낌을, 리넨 팬츠, 데님 팬츠를 함께 매치하면 편안하고 여유로운 무드를 연출할 수 있다.

노출이 부담스럽다면 가벼운 아우터를 걸치는 것도 좋다.

크롭트 톱을 따로 장만하자니 자주 안 입을 것 같다면 여름 티셔츠를 간단히 묶어 연출해보자. 티셔츠의 앞부분을 돌돌 말아 한쪽으로 묶거나 티셔츠 양 쪽을 묶어 복부를 살짝 드러내면 크롭트 톱 느낌이 난다.

### ■ 예측 불가 '커트 아웃 디테일'



사진=gucci.com

골반, 종아리 등 보디라인 중 가장 가려진 부분을 드러내면 장점이 부각돼 더욱 날씬해보일 수 있다.

### ■ 매혹적인 '시스루'



사진=shutterstock

보는 것만으로도 청량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다.

시스루 아이템을 일상복으로 소화하고 싶을 땐 '레이어링'을 기억하자. 시스루 원피스 위에 조끼를 덧입거나 시스루 의상 안에 슬립을 받쳐입으면 된다. 시스루 블라우스에 니트 뷔스티어를 레이어드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번 시즌엔 독특한 부위를 드러내는 이색적인 '커트 아웃' 디테일이 쏟아져 나왔다. 가슴, 어깨, 다리 등 관능적인 노출 포인트가 아닌 배, 옆구리, 쇄골 등 독특한 부위를 드러낸 것이 특징이다.

커트 아웃 디테일을 활용할 땐 자신의 보디라인에서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을 드러내거나 쇄골,

종아리 등 보디라인 중 가장 가려진 부분을 드러내면 장점이 부각돼 더욱 날씬해보일 수 있다.

은근한 노출의 '꿀관왕'은 역시 속이 비치는 시스루 아이템이다.

이번 시즌에는 시스루 보디슈트는 물론 속이 훤히 비치는 시스루 원피스, 슈트가 다양하게 등장했다.

속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탓에 평소 시스루 의상을 쉽게 입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상복과 적절히 믹스매치하면

백세건강지킴이  
세리토스,  
다우니, 롱비치,  
실비치 지역등  
노약사에게 전화주세요.



•시니어 약 전문상담  
•25년 병원 임상경험

약사 노혜경  
Pharm.D.  
Board Certified  
Pharmacotherapy Specialist

**Howard Drugs**

Del Amo Blvd. 와 Pioneer Blvd. 20141 PIONEER BLVD. LAKEWOOD, CA 92715

MART 옆

**562-866-6011**

노약국

Your Locally Owned  
HealthMart  
PHARMACY

This pharmacy is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under a license from Health Mart Systems, Inc.

JOY 핸디맨 & 플러밍



물  
새  
요  
:

연락주세요.

24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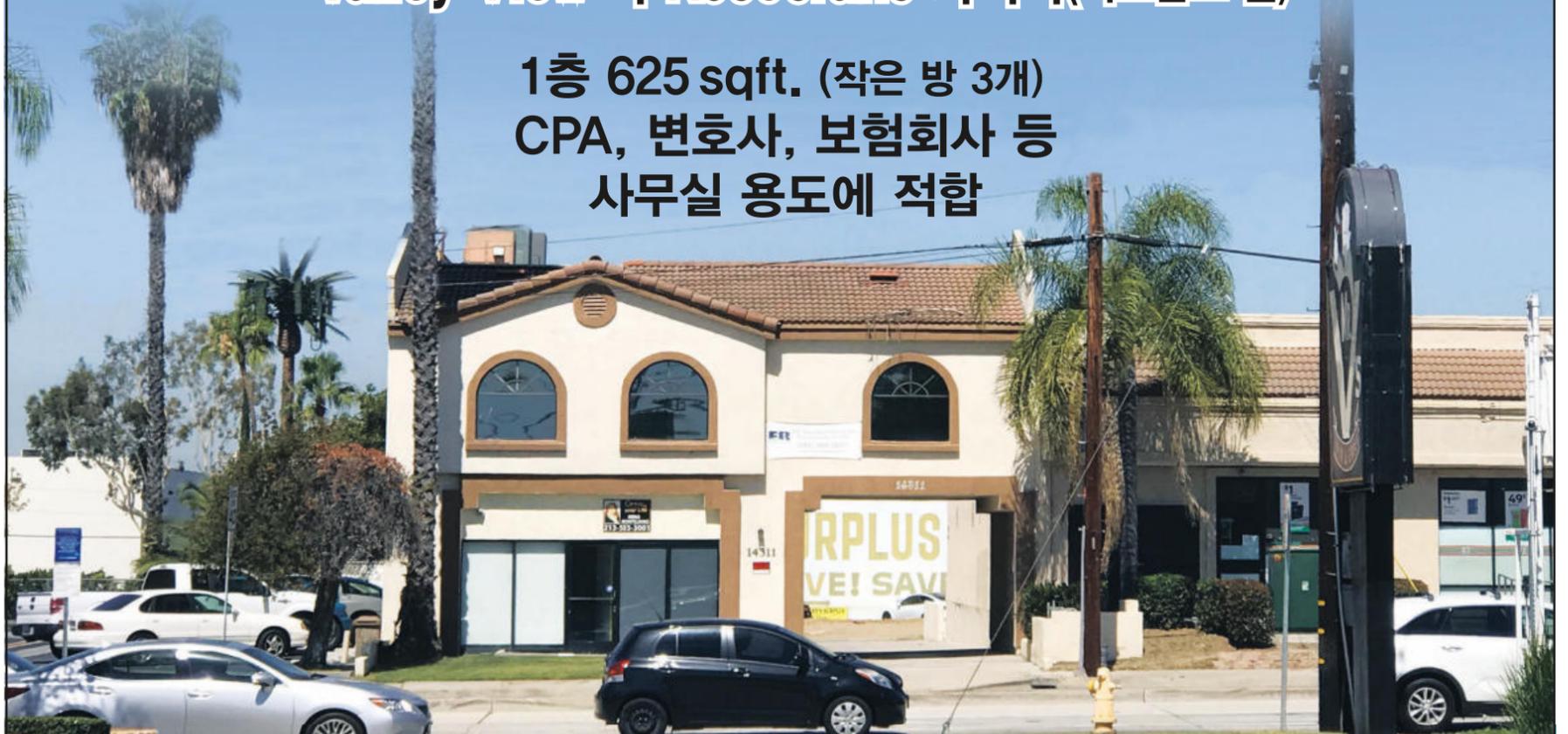
제이킴

714.249.5469

# 오피스 임대

Valley View 와 Rosecrans 사거리(맥도날드 옆)

1층 625 sqft. (작은 방 3개)  
CPA, 변호사, 보험회사 등  
사무실 용도에 적합



949-501-8555 리아 장